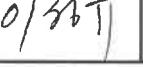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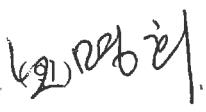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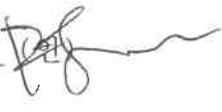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04/15	Gwangju	
개최일시	2021년 4월 15일 오전10시	회의장소 담당부서	백주년기념관 608호 기획팀		
참석의원	노명희, 송기창, 심채연, 여인권, 윤휘수, 전라옥, 홍규덕	기록자(간사) 불참의원 기타참석자	이정규 김홍갑, 이성림, 육정원, 홍석환 기획처장 오명전, 사무관리처장 김용화, 재무관리팀장 김경욱	기록일	2021.4.15.(목)
안건	1. 2020학년도 교비 회계 결산 자문				
배포자료 및 기타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부의안건				
■ 심의(자문) 사항 <p>1. 의장은 총 위원 12명 중 7명이 참여하여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가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p> <p>2. 의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재무회계팀 김경욱 팀장이 설명하다.</p> <p>송기창 의원이 경상지원기부금의 이월처리 대신 2020학년도는 불용처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반영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질의하고, 재무회계팀 팀장은 배포된 자료 7page의 2020학년도 경상 기부금이 이월처리 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충분히 논의하였으나, 기부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경상 기부금이 이월처리 되었음을 설명하다. 기획처장도 교육부에서 자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확인 후 기금 목적변경을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부연하다.</p> <p>의장은 학과 발전기금은 장학금으로 주기 위하여 적립하는 경우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 일부 구성원들은 학과로 적립되는 발전기금을 모르는 일도 있음을 이야기하다. 재무회계팀장은 예전에는 학과 발전기금을 받아 장학금 지급이나 학과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으나 이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장학금 목적과 특목 기금으로 발전기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답하다. 기획처장은 개별 학과로 발전기금을 지정 기부 할 수 있음이 교원들에게 다시 안내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발전협력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다.</p> <p>송기창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 ‘2. 부채 및 기본금’에 ‘기본금 조정’ 항에 ‘기금 평가 손익’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질문하고, 재무회계팀장은 재작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금에 투자 시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나는 경우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계정으로 활용되는 것임을 답하다.</p> <p>의장은 트윈시티 외부기숙사 임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질문하고, 사무관리처장은 2022년 2월까지라고 답하고 현재 기숙사 확보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p> <p>송기창 의원이 국가장학금 2유형이 줄어든 이유와 타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질의하다. 의원들은 국가장학금의 경우 장학재단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받는 형식이므로 학교가 전체적으로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다.</p> <p>의장이 공대 장학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기획처장이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며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음과 앞으로 10억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함을 답하다.</p>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i>이정수</i> <i>go...mae</i>	
■ 심의(자문) 사항				
<p>사무관리처장이 입시요강에 장학금 지급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졸업을 하지 않고 타 대학으로 이탈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는 기존에 받았던 장학 혜택을 반납하는 규정이 없음을 이야기하다.</p> <p>송기창 의원은 신입생 장학제도 수립 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정 후 ○년까지’로 장학금 지급 기간을 명시하는 것과 어렵겠지만 중도 이탈자에 대한 장학 혜택 반납 규정 신설을 입학처와 협의하도록 조언하다.</p> <p>기금회계를 등록금 회계와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 인출 후 적립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 적립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의 자산을 매각한 후 적립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 적립이 반영된 것이라 실제로는 학교 재정 상태가 좋아진 것이 아님에도 구성원들이 재정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다. 또, 시설관리비가 본예산보다 과다 지출되었고 학생경비는 본예산 대비 과소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 13억이 학생경비 본예산 액에서 시설관리비로 넘어간 예산을 생각하여 학생경비 실제 본 예산액은 498억임을 지적하고 학생 구성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별도의 설명이나 표기를 더 하여 달라고 당부하다.</p> <p>연도별 경상수지 현황은 2020학년도 결산에서 38억 마이너스로 보이는데 앞쪽의 운영계산서상의 자료와 맞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다. 재무회계팀장은 운영계산서상에는 기부금 수입에서 현물기부금이 자금예산 지출에는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 있어 차이가 나는 것임을 답하다. 기획처장도 경상수지 현황자료에서의 관리운영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금예산 지출에는 감가상각비가 빠져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임을 부연하다. 참고로 등록금 회계 쪽에 이월금액이 학과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약 7억5천 정도가 있는데, 2021학년도 청파장학 기금 인출에 반영하여 다시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설명하다.</p> <p>송기창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 임금을 동결한다고 주장하는 미화·경비용역 업체의 주장에 우리 대학의 어려운 재정 현황에 대한 고려가 없음에 아쉬움을 표하다. 기획처장은 현재 미화·경비용역 비용에 매년 7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음과 용역 인원 조정을 할 수 없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다. 심체연 의원이 70억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기획처장이 대학과 용역 업체가 계약하지만 기존 미화·경비 고용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형태라고 답하다. 사무관리처장은 미화·경비용역 측이 70세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을 보충하여 달라는 요구와 급여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p> <p>송기창 의원이 도서구입비 3.3억 원 지출이 본예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이유를 질문하고 기획처장이 연속간행물 DB 구독 회사에서 구독료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통보하여서 미리 장기 구독을 조건으로 집행하였음을 답하다. 송기창 의원은 각 대학이 연속간행물 제공 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에서는 제공 회사에서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비용 상승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응대할 방안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교협 차원에서 대학 공동으로 연속간행물 제공 회사와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리고 추후 대교협에서 추진 시 우리 대학에서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다.</p> <p>3. 의장과 의원들은 힘든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담당 부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아래 ①~⑤에 대한 내용을 학교 측에 자문하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결의하다.</p> <p>① 교원들에게 개별 학과로 발전기금을 지정 기부할 수 있음이 다시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강화할 것</p> <p>② 장학제도 수립 시 ‘장학생 선정 후 ○년까지’로 장학금 지급 기간을 명시할 것, 특정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수혜 후 중도 이탈(자퇴, 제적) 시 장학 혜택 반납 규정 신설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입생 장학제도 수립 유관 부서(입학처)가 협의할 것</p>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013111	2022.01.31		
■ 심의(자문) 사항				
<p>③ 본예산보다 과다(과소) 짐행된 (시설관리비, 학생경비) 부분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별도의 설명이나 표기를 추가할 것</p> <p>④ 올해 경상수지는 '-38억 원' 이지만 학교 자산(토지)을 매각한 수입이 반영된 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재학 인원이 일시적 증가하여 등록금 수입에 반영된 수치로, 실질적인 학교 재정 적자의 폭은 예년에 비하여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님을 비정규직 교내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것</p> <p>⑤ 각 대학이 연속간행물 제공 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에서는 제공 회사에서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비용 상승 요구가 있을 때마다 웅대한 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교협 차원에서 대학 공동으로 연속간행물 제공 회사와 계약 체결하는 방식 추진 시 우리 대학도 참여를 고려해 볼 것</p>				
4. 의장은 의원들의 다른 질문사항이나 자문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 26분에 회의를 마친다.				

2021학년도 제 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장 <u>여인권</u> 	부의장 <u>윤희수</u> 
의원 <u>노명희</u> 	의원 <u>송기창</u> 
의원 <u>심채연</u> 	의원 <u>전라옥</u> 
의원 <u>홍규덕</u> 